

중기부-중기연, '2025년 중소기업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 2025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
- 오영주 장관, “객관적·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 역량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 이하 중기연)은 26일(목) 중기연에서 공동으로 '2025년 중소기업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 중기연 정책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2024.12.26(목) 10:20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 본원 (3층 세미나실)
- (주요 참석) 중기부장관, 창업벤처실장, 전략국장 등 / 중기연 원장, 부원장, 연구실장 등
- (주요 내용) 중기연 발전방안, 주요 정책이슈 등 발표 및 토론

이번 세미나는 중기부 실·국장 및 중기연 부원장, 연구실장 등 참석하 가운데, 2025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과제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로 조주현 원장이 중소기업 정책 썩크탱크 기능 강화, 데이터 중심 연구기능 강화, 시의성 있는 현안이슈의 연구과제 수행 등의 '중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및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는 뉴스 키워드 분석,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이슈 후보를 발굴하고, 그 이슈 후보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청취(설문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 Focus Group Interview :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토론 진행, 좌담회와 같은 형식

10대 이슈 선정결과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AI 등 미래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

순위	분야	내용
1	경영·경제	기업 규모 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2	정치·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3	정치·사회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4	경영·경제	고환율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5	경영·경제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6	기술·환경	신기술 활용에 대한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7	기술·환경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필요성 강화
8	경영·경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무역 분절화
9	정치·사회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대응과 정년제도 논의 확대
10	정치·사회	중소기업 청년 인력 고용 정책 확대

오영주 장관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분석처럼, 대내외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객관적·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연구기획과 수행으로 정책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위한 정책연구”를 당부했다.

더불어, “중기연은 '04년 설립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썩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뒷받침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담당자	이형철 (044-204-7420)
			사무관 최 승 (044-204-7423)
			주무관 이충현 (044-204-7424)

